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1년...경쟁력 입증

생산성 65%↑, 납기단축 46%↓
불량률 42% 감소 등 효과 뚜렷
공정, 물류, 안전까지 혁신 확대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성과 품질 향상을 이끌며,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완주군 ㈜골드맨 본사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지원 확대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상주해 공정 개선, 생산 동선 최적화, 작업자 안전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단순 장비 보급이 아닌 공정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한 70개 기업은 평균 생산성 65% 향상,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 등 주요 지표에서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중대재해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 설비 개선 활동도 병행돼 작업현장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날 성과보고회가 열린 ㈜골드맨은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210m에서 77m로 줄이고, 물류 적재공간 155평을 새로 확보한 대표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군산의 금형제조기업 GSM은 골드맨의 설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도내 기업간 상생의 생태계 구축 사례로 주목받았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개선된 공정 기반 위에 수출 확대와 판로 다변화 성과도 동시에 창출했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제품 손실률을 75% 줄이고 대형 유통채널과 월 50만 개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제의 '지평선 농부들'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총 2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삼성전자 출

신 물류 및 마케팅 전문가를 멘토단에 추가로 배치해 입고부터 출하까지 제조 전 과정을 혁신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현지 환경안전 전문가의 정례 방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도 고도화한다.

골드맨 김수덕 대표는 "지방에서도 혁

신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공정, 유통, 경영 마인드 전반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제조 혁신의 성과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과 전북의 상생 모델로, 기업이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며 "삼성체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국 1호' 갯벌생태마을

고창 심원면 두어마을이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역량을 인정받아 2일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사진=전북자치도>

고창군 두어마을, 대한민국 1호 갯벌생태마을 선정

해수부 '갯벌생태마을' 1호
유네스코 등재 갯벌 인접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기대

고창군 심원면에 위치한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갯벌생태마을'에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2일 해양수산부의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고창군 두어마을이 충남 서산 중앙·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주민의 참여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갯벌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한 마을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다. 범계,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서해안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품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새 서식지 복원을 통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등 국내 최초 복원 유형 사업도 예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지역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랍사르고창갯벌센터, 두어마을 복합센터(숙박·식당·카페 등)와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

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해수부 또한 두어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해설사 운영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공모 초기부터 고창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은 고용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동반 가족의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후 충족으로 완화돼 진입 장벽도 낮았다.

전북자치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익산(4.7), 순창(4.9), 군산(6.19), 김제(6.27), 부안(6.30) 등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해 왔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졌고 실제로 비자 신청과 쿼터 소진도 빠르게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쿼터 확대를 계기로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숙련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착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추가 쿼터 확보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정착 지원책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작성, 현장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이번 두어마을의 최종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에서 단 2곳만 선정된 희소성 높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마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도입해 어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함께 가자
완주 전주

혜택은 커지고 기회는 더!

RE100 시대 선도…전북형 풍력산업 ‘붐업’

경제·산업 동반성장 풍력에너지 과제 점검 신사업 발굴 논의

전북자치도가 RE10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북형 풍력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도는 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 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의 풍력에너지 과제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 수소, 풍력, 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 실질적 에너지솔루션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

북테크노파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형 풍력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가기 위한 실천방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군산대)‘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 고도화 및 지역 인재양성 실증사업’ △(건설기계연구원)‘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델 실증사업’의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 연구개발 등 신규 과제도 추가로 제안되며, 풍력분과의 실천 아젠다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제안된 과제들을 실증 중심으로 구체화해, 향후 RE100 얼라이언스의 실행력 있는 정책과 사업



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회의는 전북의 풍력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사업들

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에너지산업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RE100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지반탐사 현장 점검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장비 운영 실태 등 확인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2일 전주시 완산구 중산공원 일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사업’ 현장 행정을 실시하고, 장비 운영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

장을 비롯해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탐사업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반탐사 시연과 복구 조치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전북도는 2022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비를 투입해 GPR 장비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로 하부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주변의 공동(空洞)을 비파괴 방식으로 탐지하고, 발견 즉시 복구하는 방식이다.

2024년까지 총 919km 구간을 탐사해 388개소의 지하 공동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도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6천만 원을 투입해 총 2,031km를 대상으로 탐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에서 총 81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72.8%가 노후 하수관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GPR 탐사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병행 중이다. 도내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3,959km에 대한 정비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구조적 문제가 발견된 307km

구간에 대해 2030년까지 단계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91km는 정비가 완료됐다.

도는 2023년부터 도내 14개 시군과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탐사, 복구, 긴급 상황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탐사와 복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연구원,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회로 삼아야

우수한 종교유산을 지닌 전북을 세계 순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2027년 서울과 전국 14개 천주교 교구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중장기적인 종교유산 활용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대회를 지원하는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제창으로 시작돼 3~4년에 한 번씩 열려 평균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청년 순례·문화 교류 행사다.

국내 대회 기간은 2027년 7월 말부터 8월 초로, 대회 기간 중 처음 4박 5일

은 14개 지역교구에서 각각 교구대회를 열고, 이후 서울로 모두 집결해 5박 6일 일정으로 본대회를 갖는다. 본대회에 앞서 14개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는 각 지역으로 세계 청년들이 분산 체류하며 지역 문화와 신앙, 지역민과 교류하는 문화·관광 복합 체류형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대회 기간 중 교황이 역사적 장소나 순례 성지를 직접 방문하는 전례가 있어,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전주 초남이 성지 등 전북 성지를 교황이 직접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황의 전북 방문이 현실화되면, 국제적 주목도 상승과 전북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로 이어지며, 전주교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 순례·문화 관광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민 기자

이성운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법원행정처 협력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날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원



이성운 의원

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입사생 모집

4일~8월 4일까지 접수
총 59명 선발

전북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이 2025년도 청운관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59명(남 35, 여 24)으로 4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받아 8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아래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순위는 2025년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의 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임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 준비생(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

자)이고, 2순위는 2025년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의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임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3순위는 2025년도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1차 합격자이다.

접수 방법은 서울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서울장학숙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서울장학숙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북자치도서울장학숙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정동영 의원, 대북전단 경찰관 통제 법적 근거 마련



정동영 의원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조배숙 의원 “스토킹 피해자 주소 노출 막아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해자 악용 사전 차단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를 노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보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톱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소송 및 송달 절차 등을 통한 가해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차단을 골자로 해 스톱킹 범죄의 제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조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법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이사와 전입을 반복하는 고통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계속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영목 기자

온열질환 예방법

수시로 물 마시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충분한 휴식 취하기

폭염주의보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폭염경보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완·전상생발전協, 도·시군에 105개 합의안 건의

통합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액투자등
완주군불안 해소방안담겨

완주전주상생발전협이회가 최근 체결된 105개 최종합의안을 도와 시군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나섰다.

완주전주상생발전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체결된 ‘완주군민협의회-전주시민협의회 공동 합의서’를 발표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도시기(의회포함)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105개 상생 사업외에 재검토 사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 점검은 물론 홍보에 주력해 반드시 완성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군민협의회는 수용합의된 105개 방안에 대한 예산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지속검토를 요청한

2개 방안을 포함해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의된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 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액 투자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12년 이상 유지하고 증액 △완주군 의원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 등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단,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이자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대광법개정과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등 우리 지역에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하며 “완주·전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침으로서 지역



완주전주상생발전협이회가 최근 체결된 105개 최종합의안을 도와 시군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나섰다.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가자”고 밝혔다.

박진상 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수개월간 통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완주군민의 마음을 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법령 개정 등 절차와 관련된 내용과 주민 요구를 모두 고려

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유인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닌 함께 커지는 과정”이라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김영태 기자

한·중 AI 전문가들, 전주서 도시기술 비전·전략 공유

한중 AX 협력 컨퍼런스 개최
데이터주권등 상호협력 논의

한국과 중국의 AI(인공지능)·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전주에 모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지난 1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X 퓨처 포럼’의 일환으로 ‘한·중 AX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주시와 (사)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도교

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주시의 ‘AI 스마트도시 모델’과 연계해 AI기반 도시기술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AI 융합 스마트시티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기술적·사회적·윤리적 대응 방안, ESG기반 도시 전략과 데이터 주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제 발표 시간에는 하얼빈정보공정대학의 고로 부총장과 강세양 연구원이 각각 ‘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전략’과 ‘하얼빈 AI 융합 스마트시티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공지능과 도시기술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전주형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한·중 간 국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자치경찰위원회, 재난·축제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범죄예방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와 함께 하계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에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시

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수욕장 등 다중집약지역에 대한 치안·안전관리와 범죄취약지역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먼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112 신고 분석과 범죄다발지역 등의 치안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기동순찰대 등을 투입하여 력범죄는 물론 음주소란 등 주민 불안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찰의 순찰 노선을 지정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거점순찰을 통해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음주사고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유흥가 등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행사활동에 통해 강도·절도·성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등 휴가지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도내 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개장 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개장 이후에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넷째, 재난취약지 및 축제장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과거 재난 발생지역과 재난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장소에 대해서도 인파 흐름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여름철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치안관리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여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 참여 학교 수송버스 제공

의회·학교 왕복 버스 제공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일 ‘지방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학교에 학생 수송 버스를 제공했다.

시의회는 학교 측이 지방의회 체험교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의회와 학교를 왕복하는 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시의회는 체험교실을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시설을 견학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남관우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기관 모집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6세부터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맞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전주지역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장애청소년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휴비스, 전주 ‘함께장터’에 1천만원 기부

두번째 나눔 실천
골목상권·취약계층 지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섬유 기업인 휴비스(대표 김석현)가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꾸준히 힘을 더하면서 지역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와 휴비스는 2일 전주시정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승덕 휴비스 전주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비스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휴비스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추진을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함께장터’ 취지에 따라 전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휴비스는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 1위이자 폴리에스터 단섬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8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며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견기업이다.

휴비스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위한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추진해온 ‘엄마의 밤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도 누적 1억7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 화의 상생을 실현해 왔다.

휴비스 관계자는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함께 성장하고,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온 휴비스의 모든 임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휴비스와 같은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장터의 의미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범시민 참여형 나눔 소비 운동으로, 기업·공공기관·시민이 함께 골목상권을 이용하고 노동 취약계층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인후3동 익명의 기부자, 13번째 온정의손길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부
편지 봉투가 또다시 덕진구 인후3동
동네복지팀에 찾아들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13번 인후3동 동네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늘 같은 방식으로 기부자의 손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익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누적금액은 지난 1일 성금 35만 원을 포함해 4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기부자의 방문기부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라는 손 편지글과 현금 35만 원이 넣어져 있었으며 성금 35만 원 중 5만 원은 “자녀들

이 기부에 동참한 금액”이란 말만 남긴 채 홀연히 되돌아갔다.

기부자의 도움의 손길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금’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기부에 동참한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인후3동 전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익명의 기부자 손길은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국승기 인후3동장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복지재단-깎김이, 저장 강박 가구 개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주거개선 업무협약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일 여름철 저장 강박 가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방역 전문업체 ‘깎김이’(대표 백진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위기·고립 가구 주거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협약업체는 총 3곳으로 늘어났게 됐다.

협약업체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물건이 과도하게 쌓인 공간에서 전기 사용 증가와 통풍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저장 강박 가구의 주거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거개선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전주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저장 강박 가구 지원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건에서 올해 상반기 12건으

로 1년 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기존 2곳이었던 청소년·방역 수행업체를 3곳으로 확대해 증가하는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저장 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행업체를 확대했다”며 “이와 더불어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위기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넷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 건강관리(건강검진, 상담) △식사 영양개선(군형영양식) 등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중소기업 56개사 ‘성장사다리’에 올라

신규 기업에 지정서 수여 총 104억 규모 패키지 지원 올해 첫 ‘혁신단계’도 신설

전북자치도가 도내 유망 중소기업 56개사를 성장사다리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을 열고, 신규 기업 지정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성장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캡티브종합기술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237개사가 신청해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6개사를 대상으로 지정서가 수여됐다. 성

장사다리기업 육성사업은 ‘돌움→도약→선도→혁신→글로벌 강소기업’ 5단계 체계로 이뤄지며 기술개발, 마케팅, ESG 진단 등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84개 기업에 총 104억 원이 투입되며, 기업당 최대 7억 원의 융자와 연 3%의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내수와 수출을 모두 실현한 기업을 위한 ‘혁신기업’ 단계를 신설하고, 역행 기업 방지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자율 배분형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됐다.

특히 신규 지정 기업에는 ESG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기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산 (현)컴팩터원 부회장이 ‘129년 기업의 변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기업 경영 전략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정된 기업 중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5개사가 포함돼 도내 기업들의 높은 역



전북자치도는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을 열고, 신규 기업 지정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성장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사진=전북도>

량을 입증했으며, 지정서 수여 이후에는 기업 간 정보 교류와 산업 트렌드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참여 기업들은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의 장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기업

/김은지 기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모내기를 위한 트랙터가 분주하게 로터리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농기원>

장마 전 봄철 영농 ‘마침표’…분주한 농촌

농촌은 지금

어느덧 바쁜 봄철 영농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봄에는 경작지를 준비하고, 모내기와 겨울 동안 자란 보리·밀, 양파·마늘의 수확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다. 이제 그 끝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저온이 지속돼 작물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벼 싹 틔우기 과정에서는 저온으로 인해 발아가 되지 않아 두 번씩 육묘를 반복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평년에는 6월 말경 시작되던 장맛비가 10여일이 빨라져, 농작업이 한창이던 시점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논농사에 물에 잠겼고, 밀은 수확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기후에 따라 금년도 전북 농작물의 생산 지도에도 변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종 단계에 다다른 논농은 땅이 마르지 않아 당분간 파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농가는 콩을 대신해 다시 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앙할 묘를 구할 곳이 없는 농가에서는 팔과 같이 늦 파종이 가능한 작물로 대체를 고려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모작이 가능한 대표적인 작물은 가루쌀이다. 최근에는 전북에서도 밀가루 대체 작목으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과 같아 건식 제분이 가능하며,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또한, 6월 30일에서 7월 5일까지 모내기가 가능해, 장마가 지속돼 담수 상태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전북 기업경기 BSI 89 상승…회복 기대감 반영

전 분기 대비 뚜렷한 상승세 자금사정은 여전히 ‘빨간불’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회장 김정태)가 111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BSI(Business Survey Index)가 ‘89’로 집계됐다.

3/4분기 BSI는 지난 1/4분기(68)과 2/4분기(69)에 비해 수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회복세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대감이 기업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92), 영업이익(82), 설비투자(91), 자금사정(67) 등 모든 지수가 모든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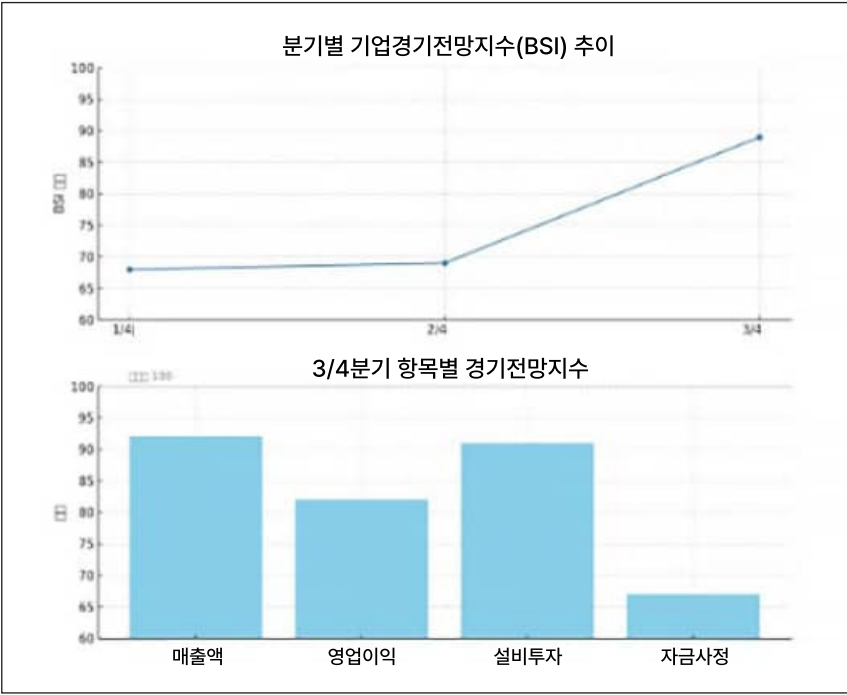
그러나 자금사정 지수는 주요 항목 가

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기업이 자금 조달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업 규모와 매출 유형별 3/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보다 상승했으나, 기준치(100)를 넘지 못해 경기 회복 체감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책당국도 규제 완화, 예산 조기 집행, 대외 통상전략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가 111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BSI가 89로 집계돼 지난 분기비 개선으로 나타났다. <사진=전북상협>

전북자치도, ‘민물고기 제왕’ 어린 쏘가리 무상 방류

남원·완주·부안 수계에 순환식 인공부하 종자 공급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일,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등 도내 3개 시군 수계에 어린 쏘가리 3만5천마리를 무상 방류하며 내수면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쏘가리는 전장 약 3cm 크기의 건강한 개체로, 연구소에서 기른 3년 이상 된 어미로부터 인공 체란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부화한 뒤, 약 30일간 사육한 종자다.

수산물안전센터의 질병검사를 통과한 후 생태계 정착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만 선별적으로 방류된다.

쏘가리는 육식성 어종으로 맑고 유속이 느린 강 중하류나 저수지의 자갈·바

위 틈에서 서식하며, 베스, 블루길 등 유해 외래어종을 포식하는 생태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횡간과 매운탕용으로 수요가 높고 단가도 높아 어업인의 소득 원인으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1년부터 쏘가리 종자 방류 사업을 본격화해, 2024년까지 누적 42만8천마리를 도내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해 왔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쏘가리를 비롯해 다양한 품종의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함으로써 도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유해어종 제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수산정책 구현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 기반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상환근거 신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 25.1.21)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제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

문금융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로 결제된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신입행원 20명 수습종료 후사령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64기 신입행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의 직무연수와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마친 20명의 신입행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영업점에 배치되어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익히며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날 수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과 함윤록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전북은행의 새 일원이 된 신입행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신입행원 여러분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은행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농어촌공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 태국서 성과

230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태국에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230만 달러(한화 약 31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기계, 비료 등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단’과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농기자재 시장 진출 교두보인 태국에 파견됐다.

/정소민 기자

태국은 농업 부문 GDP 비중이 8%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업국가로 관련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재,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시장개척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태국 현지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여했다.

공사는 태국과 인접 국가의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해 1:1 상담을 주선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219건, 2,1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12건,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IB 후보학교 1년 만에 21개교로…우려 목소리 나와

교육청 “공교육 미래 역량 강화” 교육계 “특권층 프로그램”

전북 지역 IB 후보학교가 1년 만에 총 21개로 늘어났지만, 일각에선 학교 현장과의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원 용북중학교가 전북 최초로 IB 후보학교로 승인된 이후 1년 만

에 도내 IB 후보학교는 총 21개로 늘었다.

초등학교 과정인 IB PYP 7개교, 중학교 과정 IB MYP 10개교, 고등학교 과정 IB DP 4개교 등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지난 1년간 전북 지역에 IB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

됐고, 이를 통해 전북 공교육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IB 학교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IB 프로그램의 방향성 자체는 좋지만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나 초등생들에게 IB 도입은 공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잃어가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전북 교육계 관계자는 “IB학교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의 속도와 현장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전북교육청은 ‘글로벌’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지역’에 갇혀 있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사노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교육 주요 현안 이해 부족
실현 역량 의문 제기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책임자가 아니라 판단돼 이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 및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으로 내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인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어긋나며, 교육 주체들과의 신뢰 형성에

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도 실질적인 기획이나 실행의 주도자라기보다는 단편적 역할에 그쳤다”며 “전체 교육 정책을 이끌 책임자 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인데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시국선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바람개비 “교육감 권한대행 ‘정책 계승자’ 우려”

“정책 계승 의지 공식 철회하고
새 교육감에 결정권 넘길 준비”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당장 무효형으로 직을 박탈당한 서거석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바람개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유 권한대행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적임자의 정책을 ‘정치적 유산’처럼 계승

하거나, 정책 방향을 고수할 정당성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할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한대행은 ‘안정적 관리자’이지 ‘정

책 추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은 적임자의 정책 계승 의지를 공식 철회하고, 새로 선출될 교육감에게 정책 결정권을 온전히 이양할 준비를 하라”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안정만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달란트 전형’ 첫 도입…250명 선발 예정

26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6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부터 학생 부교과전형 중 ‘달란트전형’을 신설해 총 25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란트’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이번엔 신선했던 ‘달란트전형’은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달란트를 발견한 후 잘 활용하고 개발해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신설한 전형이다.

달란트전형은 교육과정 개편 및 진로선택과목 수강 확대에 따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한 과목의 성적을 보통 교과 성적보다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보통 교과(성적 상위 3개 교과군) 성적과 진로선택과목 원점수 성적을 각각 40%와 60%로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하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달란트전형은 단과대학 통합선발이 이루어지는 2개의 단과대학(인문콘텐츠대학, 경영대학)과 2개의 학부(자유전공학부, 사범대학 자율전공학부)에서 총 25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이번 달란트전형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의 정합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로와 성장 가능성을 더 깊이 살피며, 입학전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한중 SW 협력 물꼬…하얼빈 정보공정대와 국제 교류

전북대·군산대·원광대
SW·AI분야협력방안논의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학부장 홍득조)와 SW중심대학사업단(사업단장 김성찬)이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정보 공학 분야에서 특화된 하얼빈 정보공정대학과 국제 교류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과와 SW중심대학사업단이 공동 주관하여 1일 오전 10시 전북대 진수당 회의실에서 전북권 3개 대학(전북대·군산대·원광대)과 하얼빈 정보공정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로(高鵬) 하얼빈 정보공정대학 부총장 겸 소프트웨어학원 원장을 비롯해 선진휘(单振辉) 소프트웨어학원 부원장, 장해동(张海东) 정보센터

장, 장송(张松) 국제교류센터장, 조준비(赵俊飞) 연구개발센터장, 강시양(姜诗扬) 소프트웨어학원 원장 보좌 및 연구원 등 중국 대학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대학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홍득조 교수(컴퓨터인공지능학부장)가 학과 교육과정과 주요 연구 인프라를 소개하고, 대학 내에 구축된 학습관리시스템(LMS), 그리고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구축한 AI서버실과 XR실습실, 교육혁신본부에서 구축한 AI스페이스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교류에는 국제문화예술산업진흥원의 이정훈 이사과 (주)케이테크 양재동 대표 등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산학연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하며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 안전보건학과, 일 경험 프로젝트 1기 성과공유회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안전보건학과는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 1기 성과공유회를 지난달 30일 교내 보건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통한 실무

형 인재 양성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생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생들이 각 산업 현장에서 직접 분석한 작업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도출 결과물을

발표했으며, 평가 결과 3학년 김예린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총 4명의 학생이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최성민 기자

완주군로컬JOB센터, 도시민 유입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완주군로컬JOB센터가 도시 구직자 유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군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는 ‘전북 농·식품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인력 중개 및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로컬JOB센터는 농가 일자리에 총 7500여 명의 근로자를 연계했으며, 이 중 약 56%인 4200여 명이

전주와 익산,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유입된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7400여 명이 농가 일자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시 구직자는 4300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촉진수당을, 농가에는 중·간식비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과 팜키트 제공, 인력 매칭 등 다양한 지원도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성민 기자

01

수분 섭취 늘리기

02

자외선 차단하기

03

충분한 휴식 취하기

05

적절한 운동하기

04

적절한 식사하기

여름철 건강관리



정읍시, 폭염특보 대응 시 주요 지점에 얼음생수 비치

정읍시가 폭염특보에 대응해 시 전역 주요 지점 9곳에 얼음생수 3만 병을 비치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대응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얼음생수는 △버스승강장 △교통섬 △공원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거점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갈증 해소는 물론 체온 조절과 수분 보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얼음생수 제공은 단순하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조치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예방 청렴 교육 실시

군산시가 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백한 고의성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중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6곳의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강좌에는 외부 전문 강사가 초청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올바른 제공 방법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및 중점 관리 사항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안내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활동 시간의 부정확한 기록 ▲서비스 미제공 시에도 활동일지 기재 ▲대리결제 및 서면 위·변조 등의 사례가 실제 예시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KT 위즈 흥경기서 도시 홍보 ‘익산데이(Day)’

익산시가 프로야구장을 무대로 지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일 저녁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익산데이(Day)’ 행사를 진행했다.

KT 위즈 2군 연구지원 익산시는 KT 위즈 구단과 협업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프로야구를 통해 익산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다.

이번 경기에는 익산시 홍보대사인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시구자로 나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전광판 영상과 백스탑 광고 등을 통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익산시 시정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주요 스포츠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돼 전국에 익산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익산데이에서는 익산시 리틀야구단과 여자야구단 등을 초청해 단체 관람도 이뤄졌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2027년 목표

한국수자원공사 협약 체결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 체계 전환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 시 전역 보급을 목표로 광역상수도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는 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 정수장을 대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춘포분기점~신흥배수지(지름 800mm, 2.9km) △신흥배수지~금강배수지(지름 600mm, 2.3km) 구간에 송수관로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사업 발주와 착공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1월부터는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에 따른 용수 공급 체계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 브리핑 모습

<사진=익산시>

이번 사업은 송수관로를 신설하고, 기존 신흥·금강 정수장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익산은 광역상수도(66.2%)와 자체 정수(33.8%)를 병행해 사용 중이나,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용수 공급을 전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된다.

시가 자체 운영 중인 금강·신흥정수장은 시설 노후화와 원수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업용 개방형 수로를 원수로 활용하면 서 수질 오염 위험이 높아진 점도 광역상수도 전환의 주요 배경이다.

이에 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그동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간담회,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2022년 6월)을 통해 절차적 기반도 마련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나눔복지’ 실현… 공유냉장고

7만 8000세대 수혜

정읍시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의 복지 지평을 바꾸며 연대와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유냉장고를 운영 중이다.

각 냉장고는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운영되며, 시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식품 기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지 총 1403개의 기탁처가 참여해 5억 831만원 상당의 식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7만 8129세대에 약 4억 7433만원 규모의 식품이 지원됐다.

해마다 참여와 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공유냉장고는 단순한 기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정기기부에 기여한 4개 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식품을 기부하고 냉장고에 진열해보는 체험을 진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어린 세대까지 확산시켰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정읍형 나눔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돌봄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시장은 “공유냉장고는 단순한 물품 나눔을 넘어, 이웃 간의 온정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3중계펌프장 악취 해소 위한 적극행정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정 개선…시설 밀폐화

익산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평화동 3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평화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중계펌프장 악취 저감시설을 전면 보완하고, 밀폐화 및 환경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

기되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악취 곰팡이 투입으로 인해 배출구에서 복합악취가 다소 높게 발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익산시는 환경 전문가를 영입해 악취저감시설의 악취 투입 공정을 전면 개선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4차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함께 펌프장 시설의 밀폐화 공사를 실시하고, 내·외부 환경을 정비해 악취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차단했다.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에는 악취농도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펌프장 내에는 투명 관찰창을 마련해 시설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 검사 결과와 펌프장 관련 정보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에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과 신뢰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도심 열기 물로 식힌다…살수차 본격 운행

하루 3~5회 집중 운영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예년보다 일찍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폭염특보 발령 시점이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예년보다 앞당겨 7월 초부터 살수 작업을 본격 진행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효율적인 살수를 위해 시는 지역을 2개 권역(동군산/서군산)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2대씩 총 4대의 살수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살수차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 오후 5시 하루 3~5회 집중적으로 살수를 실시한다.

이원실 건설과장은 “폭염 기간 동안 살수차 운영 횟수를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 물빛축제 부스 운영자 공모

7일까지먹거리주류체험부스

정읍시가 여름 대표 축제인 ‘물빛축제’를 앞두고 먹거리와 체험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일까지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부스 운영 기간은 축제가 열리는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모집 분야는 △간식 부스 14개소 △푸드트럭 6개소 △주류 부스 5

개소(맥주 3, 막걸리 2) △체험 부스 2개소 등 총 27개 팀이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자격은 정읍에 소재한 단체·업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본관 4층 관광기획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yuuuuuuu@korea.kr)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관광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6개 대학, 군산 고군산군도서 ‘섬에서 계절학기’ 강좌

VR-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교육

군산시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국내 6개 대학 학생·교수·전문가가 참여한 ‘섬에서 계절학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펼쳐지는 ‘섬에서 계절학기’는 한국섬진흥원과 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군산시가 연계 협력하여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에는 전주대, 건국대, 계원예대, 중앙대, 계명대, 호원대 등 6개 대학의 실감미디어학과 재학생 80명과 교수 및 전문가 30명 등 총 1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고군산군도를 담은 가상현실(VR)·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모두 선유도에 상주하면서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색하며 대학생 시각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교육의 대미를 장식하는 4일에는 (주)조선식량양단 군산출장소에서 성과 발표회(쇼케이스)를 열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6개월간 전시를 진행한다.

군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 주관하는 시간여행마를 방문객 대상으로 전시 방문 행사도 추진, 고군산군도의 매력을 알릴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일본 돈다바야시시, 역사문화 교류 재개

익산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돈다바야시시와의 역사 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백제왕도 익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영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일 일본 오사카의 돈다바야시 시청을 방문해 요시무라 요시미 시장과 환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라는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상호 대표단 파견, 학술행사 및 지역축제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미쓰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돈다바

야시시는 백제촌, 하백제 등 지명이 남아 있을 만큼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아스카문화의 중심지”라며 “익산 또한 백제 무왕의 도읍지로서 두 도시 간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하고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아스카시대 돈다바야시와 백제시대 익산이 교류했던 인연처럼, 오늘날 양 도시도 문화와 인적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니아마치’로 알려진 돈다바야시의 중요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익산의 금마 백제왕궁 일원에 추진 중인 백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정책 공유와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위한 주민설명회

사업계획이익공유 방안 설명

군산시가 지난 1일 옥도면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어청도 주민 등 군산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현재 공공주도로 추진 중이며,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GW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

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위치 및 추진 일정 △입지 조건 사전 검토 △전력계통 연계 방안 △민관협의회 운영 현황과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와 함께 주민 이익공유방안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진행됐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의견서 접수 오는 8일까지 받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재정집행 성적표 ‘도내 1위’

**도유일 전 분야 정부 목표 달성
상반기 집행 61.3% 초과 기록
소비·투자·신속집행 모두 선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에서 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신속집행 분야에서 대상액

5,021억원 중 3,079억원(집행률 61.3%)을 집행해 정부 목표(54.8%) 대비 328억원(6.5%p) 초과 기록했으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66억원 대비 178억원(16.6%p) 초과 달성한 1,244억원(집행률 116.6%)을 집행하며 지역 내 경제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는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에서 신속집행 분야와 소비·투자 분야 모두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율을 달성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지자체며, 전 분야 목표 달성이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재정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와 대규모 투자·이월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관리 등 집행을 제고할 위해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하반기에도 이·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경찰청장,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방문

**김철문 청장 운봉읍 찾아
현장 실사서 입지 강점 공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과 시 관계자, 윤지홍 남원 시의원, 신동윤·손원철 제2중앙경찰학교 민관협력추진위원회장이 함께 참석해,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 실사는 바래봉 전망데크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리산과 조지를 조망하며 후보지 설명을 들었다. 특히, 남원이 영호남을 잇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이자,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를 보유한 경제성 높은 부지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은 신입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정서적 안정과 수련 효과



1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남원 운봉읍에 위치한 제2경찰학교 후보지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사진=남원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들은 입지와 교육환경 전반에서 남원이 신입 경찰관 교육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데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제2중앙경찰학교 민관협력추진위원회 손원철 회장도 “지역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

드시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의 강한 기대와 환영 의사를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최근 영호남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최종 부지 선정까지 정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5일 개막

**주민 아이디어 담은 여름축제
마스코트 ‘동상이’ 첫 등장**

완주군 동상면이 여름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동상면 대이천 계곡(대이수목로 379-4) 일원에서 ‘제3회 동상계곡 물소리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이 계곡의 청량함을 만끽하며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수영장이 마련돼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페이스페

인팅, 슈팅클스, 섹캠·부채·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상생활문화센터의 색소폰과 풍물 공연을 비롯해 (사)타악연회원 아귀의 신나는 난타 공연, 초청 가수 현진우의 무대, 한양무용 예술학원생들의 댄스공연과 환상적인 버블쇼가 펼쳐진다.

물풍선 받기, 물병 세우기, 신발 멀리 던지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과 즉석 노래 및 댄스 경연 등 관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돼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동상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동상이’가 축제의 마스코트로 처음 등장한다.

동상이는 꽃감 모양 수염모자를 쓰고 물놀이하는 아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동상면의 대표 특산물인 꽃감과 계곡 물을 모티브로 삼았다. 동상이는 영상, 리플릿, 포토존, 부채, 배지 등 축제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유경태 물소리축제 추진위원장은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에 많은 분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관광자원과 주민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서
주민 소통·실천적 의정활동**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라북도 시군의회와 장협의회가 주관하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 의원은 탁월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광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보다는, 늘 곁에서 따뜻한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값진 결과”라며,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군정에 온전히 담아내는 일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최광호 의원은 평소에도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과의 소통에 힘쓰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올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옥천장학회, 8억 9천만 원 지원
재학·학력 기준 따라 차등 지급**

순창군은 (재)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됐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49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들에게

총 8억 9,5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학년 및 재학 시기, 중·고등학교 졸업 시기 등에 따라 구분됐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인당 200만 원,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는 150만 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11억 투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도내 동일 추진 시군 중 최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11.2억원(도 100.8백만 원, 시 235.2백만 원, 자부담 784백만 원) 규모로 도내 동일사업 추진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출하능가 및 공동

선별능가이며,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해, 농산물 유통과정의 비용을 줄이고, 공동출하·선별체계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포도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1,873,127매 포장재를 한 매당 520원~1,690원 정도 지원해 3,400여 공동출하 및 공동선별 농가가 3.36억원 상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3주년 맞아 현장 소통 행보

복지·안전·성과로 시민과 함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1일부터 2일까지 시청과 복지 현장에서 기념행사와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1일 아침, 최경식 시장은 등곳길 주요 지점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캠페인을 직접 실시했다.

이후 시청 강당에서 열린 공식 기념행사는 국민의례와 유공자 표창으로 시작됐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복지제도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성과가 소개됐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공식 이행을 80% 달성, 국립기관 유치, 정주환경 개선 등

주요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 후반에는 새로 부임한 부시장의 공식 소개가 있었다.

2일에는 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배식봉사와 복지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 시장은 어르신들과 직접 식사를 나누며 소통했고, 이어진 간담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곽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노선 확대, 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설치, 상담·교육보조 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시나브로 치유길’
힐링 특화 관광콘텐츠 성황**

완주군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기획한 ‘완주 시나브로 치유길 노르딕 워킹 치유 힐링 여행’ 관광상품을 구이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5~6월 동안 구이저수지 둘레길 일원에서 진행됐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자연이 주는 여유와 심신의 치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특화 관광상품이다.

행사는 당일형 여행으로 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서울·경기·경남·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 명이 참여해 ‘시나브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들은 △노르딕 워킹 △싱잉볼 체험 △명상 △요가 △전시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스틱을 활용한 바른 자세 걷기 운동인 노르딕 워킹은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시나브로 치유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특화 치유 관광상품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콘텐츠의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SNS 전용 채널을 개설해 숏폼 영상 콘텐츠와 인접 관광자원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숙련도 전 항목 ‘우수’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2025년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는 전국 15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2종의 미지 토양 시료에 대해 토양 pH, 전기전도도(EC), 치환성 양이온 등 총 9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은 9개 검정 항목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실제로, 센터는 매년 4,000점 이상의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과 과학적 토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정밀한 토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적정 시비량과 토양 개량 방법을 제시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돕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제안 ‘페트병 무인회수기’ 정책 실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제안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정책이 실제 군정에 반영돼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2024년 12월 정책발표회에서 제안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서문화체육센터 설치’ 정책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일명 네프론)는 인공지능 이미지 센싱 기술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등 순환 자원을 자동 판별해 수거하는 자원순환 로봇이다.

이용자는 1병당 1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 환전도 가능하다. 네프론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수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서문화체육센터 정문 앞에 기기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3개소를 포함해 총 5대를 운영하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 군정에 반영돼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5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순창군>

팀워크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윤형욱·김병국 조는 남자 개인복식에서 완벽한 호흡과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순창군청 소속으로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설윤수 선수는 옥천군청의 이수진 선수와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며 입상에 성공, 순창군청의 입상 행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 성과는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군 백운통합협동조합, 어르신 가정 방충망 수리 봉사

진안군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남근, 이하 협동조합)이 백운면 내 어르신 16 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25개를 교체·수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홀로 거주하거나 노부부만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면민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조직하고,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마을기술사업단 강사를 초빙해 방충망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주 함께 복지' 후원 나눔 동참

성금 1000만 원 후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대표 오병삼)가 전주시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 함께 복지' 사업에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전주시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2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오병삼 대표, 한기복 전북권역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함께 복지' 사업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금과, 전북권역본부 임직

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발적 기부에 참여해 마련한 성금을 모아 마련했으며, 전주시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 '전주 함께 라면, 전주함께라떼'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대표는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정성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남원 운봉농협 농가주부회, 5일장 맞이 음료 나눔 봉사 활동

운봉농협 농가주부회(회장 박선임)는 지난 달 26일 운봉 후 행복누리센터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읍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가주부회는 매달 1일, 6일 열리는 운봉 전통장날마다 꾸준히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점차 활기를 잃어가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희망을 노래하는사람들, 장애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읍서 3일간 진행

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이 지난 달 26일부터 27일, 30일까지 3일간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

됐다. 참가자들은 고택에서의 숙박을 통해 한옥의 멋과 전통 건축양식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다도 체험과 다도 찻상 만들기 등을 통해 전통 다례의 의미와 다도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몸을 아끼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됐다.

또한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보며 조상들의 발효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식문화를 체험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탄소중립 실천... '사무실 Time-Off'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청렴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사무실 Time-Off'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일정 시간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전 직원들이 내장산 현장에 나가 여름 성수기 대비 안전점검과 환경정화(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플로깅 활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단순 폐기하지 않고, 청렴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친환경 상징물 및 문구'로 재창작하여 내장산 국립공원 SNS 채널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그린텍 아이엔씨, 무주군에 500만 원 기부

(주)그린텍 아이엔씨가 지난 2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우 (주)그린텍 아이엔씨 대표는 "업무를 통해 맺게 된 무주와의 인연이 고향사랑, 무주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뜻깊다"라며 "기부금이 자연이 아름다운 무주를 가꾸고 군민들의 행복을 일구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그린텍 아이엔씨는 무주군의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관련 시설의 감시 제어 설비를 운영해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2,956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해 3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존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 참여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쓰인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께 선풍기 전달

익산시 성당면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전했다.

성당면은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중수)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선풍기 30대 (26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후원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선풍기는 삼성

스토어 함열점과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가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선풍기 전달은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익산선화라이온스클럽(회장 서연우), 성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수현), 성당면 이장단이 참여한다.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선풍기를 조립하고,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경찰서, 지역 영세 상인 대상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지역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노쇼(사기 주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 기관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기관 명의의 허위 공문과 다른 물품의 대납을 요구하는 노쇼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벌였다.

류관송 임실경찰서장은 "최근 노쇼 사기가 전국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치킨로드 2호점 BBQ, 지역 아동들에 치킨 기부

익산시는 치킨로드의 두 번째 가맹점인 '비비큐(BBQ) 문화점'이 지역 아동을 위해 치킨 10마리를 기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치킨은 신흥동 소재 아동보육시설인 '기독교애원'에 전달됐다.

BBQ 문화점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다"며 "작지만 진심을 담은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뽀빠이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물놀이할 때에는 구명조끼 또는 튜브를 반드시 사용한다.



깊은 곳이나 물살이 심한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다.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신발을 꼭 신는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一事一言〉



경제구조 개혁도 힘 있을 때 밀어 붙여라

홍중학
전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소비자가 심리지수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8년 전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국정을 논의할 때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다. 어느 사이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 부서의 향후 5년간 성적이 결정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과거 방식의 부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논란될 일은 피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간혹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들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 선거 공약에서는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권 후 실현한다고 미뤘었는데, 이 단계에서 거론조차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진 개혁과제들조차 대부분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되었다.

정부 구성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나, 각 부서에 맡겨졌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뜬금없는 계엄사태로 무너진 신뢰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경제는 빗더미에 놓여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인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경제가 되었다.

이미 이러한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쇠락하는 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정부는 과거 국정 운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3기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 경제정책을 관료들에게 일임하면서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망국병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인사나 부서가 없다.

는 말은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주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는 곧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하니문 기간이 끝날 즈음,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에서 시작될 금융위기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판받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눈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처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허심탄화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조차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총망라한 대책회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해법을 구하기보다는 관료들의 안일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서, 민주당 간의 소통을 막아 스스로 고립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은 없었다. 중요한 정책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곧 권력을 공유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탐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 참여를 바라는 인사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의 실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다. 관료들에 의존하는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며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시 민주당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추경보다는 부동산이 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찰을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설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절망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주시의 채무 증가 속도 매우 우려스럽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전주시의 채무 증가율에 대한 경고음이 우려를 낳고 있다. 채무가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이 '위기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강조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주시의 채무는 2020년 1천300억에서 불과 4년 만에 6천억을 넘어섰고 재정자립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제는 채무 비율이 21.4%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이다.

우 시장은 불가피한 지출 요인을 언급하며 해명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빚을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그 빚으로 무엇을 이뤘는가'다. 막대한 채무를 감수하면서도 시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이 없다면, 그 자체로 재정 운영의 실패라고 봐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은 곧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전주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주역세권 개발, 관광거점 도시 조성 같은 국비 매칭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실패를 넘어 시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며 지역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가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한정된 만큼, 더욱 절제된 운영과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수사나

과장된 공약은 결국 시민의 빚으로 되돌아온다. '기재부 출신 예산전문가'를 자처하며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는 우 시장의 공약은 정작 지난 3년간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실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지, 또 그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미 불어난 채무를 타기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필요한 민생'으로 예산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단순한 회계 수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양심의 문제다. 지금처럼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시정 경영이 불가능하다.

우 시장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이재라도 시민 앞에 성찰과 책임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내역, 부채 증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화려한 말보다 목직할 실천을 원한다. 지방정부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재정이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결국 시민의 삶이 흔들린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다.

문화재열전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17년 3월 31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7-2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7월 / 이 외 수

그대는
오늘도 부재중인가
정오의 햇빛 속에서
공허한 전화벨 소리처럼
매미들이 울고 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원고지 속으로
망명한다
텅 빈 백색의 거리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
인생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리움도 깊어진다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방마다 입주시키고
빈혈을 앓으며
쓰러진다
끓임없이 목이 마르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

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발표했다. 소설 '훈장'과 '꿈

꾸는 식물', 시집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등이 있다. 2024년 하늘의 별로 돌아갔다.

JBT

전북타임스

독자 여러분을 대변해 드립니다

광고문의 -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황인홍 무주군수 민선 8기 3주년 무주다운 삶터·일터·쉼터로 눈도장

“무주를 성장시키고 군민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군은 앞으로 생활 인구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방침인데요. 무주가 가진 자연·문화 자원 확충과 콘텐츠 육성, 관광 및 정주 환경을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태권도 등),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한 관계 인구 유치, △귀농·귀촌 선도 지역으로 도약,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등이 기반이 돼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의 토대가 될 거로 확신합니다.

민선 8기 무주군은 ‘무주다운’을 기반으로 ‘군민 행복’ 실현에 주력해 활기 넘치는 삶터와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은 무주를 전국 10대 관광매력도시,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 전국 6위,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 전국 1위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무주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와 함께 하는 야간관광 1번지

무주반딧불축제(지역축제 최초 ESG운영,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수상,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예코투 어리즘축제, 2025 아시아 친환경축제 등 선정)와 무주산골영화제는 일회용품·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3無 축제로 완성도를 높여 방문객

경제에 숨을 불어 넣었다.

이외에도 로컬JOB센터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무주읍 특화거리 조성, 특례 보증,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환경안전 확보,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

환경보존, 주민 안전 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공해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반딧불이 서식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에 힘썼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하는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 했으며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등으로 유수율(2021. 55.13%-

전국 10대 관광매력도시 선정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 전국 6위

(2022~2024년 산골영화제 9만 5천여 명, 반딧불 축제 1백여만 명)들에게 ‘자연특별시 무주다운’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들 축제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으로도 선정됐다. 무주군은 이들 축제와 반딧불이 서식지, 낙화놀이 등의 콘텐츠를 야간관광 진흥도시 지원사업(2024.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BETTER로 인구 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진 지원사업(2025. 한국관광공사 선정)과 연계·활성화해 ‘대한민국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1번지’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반딧불이 서식지, 머루와인동굴, 목재문화체험장 등지에서 운영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무주를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산림을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가치 창출

무주군은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한다는 데 주목,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삼았다.

역점사업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 중(2021~2030.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으로, 조림과 임도개설, 임간 천마 재배를 통해 산림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 산림소득 증대 계기를 열었다. 또한 산림을 군민의 삶터이자 일터로 활용하기 위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향로산에 향기 정원과 전망원 등을 마련하는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2020~2026)과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목재친화센터, 목재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산림청 공모, 2022~2025), 그리고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및 금강 숲길 조성 사업 등은 산골 무주를 대표하는 산림복지 공간이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 생활 안정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 안정에 힘썼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2023~2025. 12,145건 16억 4천9백만 원 달성)하고 담례품 판매(11,135건 4억 1천5백만 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무주 사랑 상품권 판매·유통을 활성화(2022~2025. 1,399억 4천만 원 판매)했으며 카드형 상품권 5% 페이백 이벤트 진행으로 가계

2024. 70.5%)을 높였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왕정 자연재해위험해 선지구 정비 등 재해 예방에 힘썼으며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마을 2곳(적상면 상비, 하비)에 비상소화장치도 설치했다. 행정 내에는 중대재해 제로 추진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일상의 베풂목이 되고 있다.

‘인구’에 집중, 감소 대응 유입 활성화 주력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활성화에 집중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304억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2022.~2025)했다.

기금은 무주군립요양병원(66억 원)을 비롯한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6억 원),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40억 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동력이 되고 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 청년 취업(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등) 및 결혼을 통한 정착, 임신·출산·아이 돌봄 지원에 주력하는 등 생활 인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주군은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 및 정례 간담회 시행, 청년안정자금 조성 등 청년층 인구 확대 노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청년 활동 지원 관련 4개 공모에도 선정돼 8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립요양병원 개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켜내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했던 무주군은 군립요양병원을 개원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됐으며 총 36개 병실에 125병상을 갖췄다.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진료에 주력한다. 이 외 외과적 수술 후 재활, 한방, 치매 관련 진료 등이 가능하다.

특히 인공신장실은 무주군 최초시설로 환자 12명이 혈액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2025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년도에 1억 5천만 원, 2차 년도 이후에는 3억 원을 지원받는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1. 2024 피너클 어워즈 예코투어리즘 축제분야 수상
2. 반딧불이 신비탐사
3.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식
4. 반디 빛의향연
5.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



진료,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2.6%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